

2007. 7. 30.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

##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 차례 >

- 01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 06 제네바 선언
- 13 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 주요 인사 발표 내용
- 20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한국서부발전
- 25 국내 윤리경영 동향  
기업 관련  
정부 관련

☞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kica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I.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 1. 개 요

### □ 회의 요약

- 명 칭 : “The 2007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07 글로벌콤팩트 지도자 정상 회의)
  - 일 자 : '07. 7. 5.(목) ~ 7. 6.(금)
  - 장 소 : 스위스 제네바 Palais des Nations(현지 유엔본부 건물)
  - 주 최 : 유엔 글로벌콤팩트 사무국
  - 주 제 : “Facing Realities : Getting Down to Business”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responsible corporate citizenship) 제고 등
  - 참석자 : 기업인(638명), 정부기관(95명), 국제 기구(76명), 국제 비즈니스 조직(65명), 비정부기구(62명), 학계(45명),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28명) 재단(13명), 국제노동단체(5명) 등 1,027명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회사 및 폐회사

### □ 주요 참석자

- 미셸린 스위스대통령,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대통령 등 정부수반, 23 개국 장관 등 정부대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코카콜라회장 등 기업대표

### □ 회의 구성

- 개회식 : 7.5. 09:00 ~ 10:00
- 세션 I : “From Principles to Action : Driving Value, Achieving Impact”  
(7.5. 10:00 ~ 12:30)
- 세션 II : “Responding to Megatrends : Shaping the Future”  
(7.5. 14:00 ~ 17:00)

○ 각료회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7.6. 07:30~10:20)

○ 세션 III : "Facing Realities"

(7.6. 09:00 ~ 10:00)

○ 세션 IV(Parallel 세션) : "Getting Down to Business"

(7.6. 10:30 ~ 12:00)

▪ 인권(Human Rights)	▪ 노동(Labour)
▪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 유엔-기업간 파트너쉽
▪ 부패의 딜레마 해소	▪ 책임있는 투자

○ 폐막식 : 7.6. 12:15 ~ 13:00

□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2004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차기 정상 회의는 2010년에 열릴 예정임

□ 현재까지 기업, 노동조합, 비정부기구 등 116개국 4천여 개 단체들이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노력과 관련된 보편적 10대 원칙의 준수를 서약하였음

## 2. 제네바선언 채택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유엔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기업 지도자들은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였음

○ 이들은 21개 항으로 구성된 기업, 정부 및 글로벌콤팩트 참여 단체들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인 "제네바 선언(Geneva Declaration)"을 채택하였음

□ 제네바 선언은 "보편적 원칙에 근거한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며, 인류와 지역 사회, 전 세계 시장 모두에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

- 본 선언은 “이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며, 빈곤, 소득 불균형, 보호주의, 양호한(decent) 일자리 기회의 부재는 세계 평화와 시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역설하였음
- 폐회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 선도적인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리더십과 지속가능성의 리더십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두 손을 맞잡고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적 존재임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다”고 말함
  - 반 총장은 이어 “이를 통해 더욱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연설하였음
- 반 총장은 덧붙여 “글로벌콤팩트의 자발적 성격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업 지도자들에게 이사회를 소집해 정상 회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콤팩트가 기업 내부 및 모든 공급업체와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도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였음
- 반 총장은 또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대표들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참여하여 기업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음
  -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그는 글로벌콤팩트를 유례가 없는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UN의 역할에 대해서는 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을 UN 전체에 통합시켜 달라고 강조하였음
- 그는 이어 “우리 모두는 제네바 선언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시장과 경제에 구현하겠다는 집단적 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제 각자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네바 선언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 발전, 국제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화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할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 아래 오늘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자”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음

### 3. 각료 회의(Ministerial Roundtable) 개최

- Sheikha Haya Rashed Al Khalifa UN 총회 의장 주재로 23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 회의가 열렸으며, 기업의 책임있는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Soft Power"(발표자 : Paul Hohnen 유엔 글로벌콤팩트 사무국 특별고문) 및 "Responsible Competitiveness"(발표자 : Simon Zadek AccountAbility 회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정부대표의 발표 및 토론 시간이 이어졌음
-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장 요약문(Chairperson's Summary)"으로 정리되어 정상 회의 폐막식에서 채택·발표됨
  - 본 요약문은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호의적 환경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등 글로벌콤팩트 활동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선언함

### 4. 기 타

- 본 정상 회의에서는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이니셔티브들도 소개되었음
  - 포춘誌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개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150개 기업의 대표들은 “기후보호 선언문(Caring for Climate : The Business Leaders Platform)”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행동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가능한한 빨리 교토 의정서의 후속 조치에 합의해 실현 가능하며 포괄적인 기후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 코카 콜라, Levi Strauss & Co., LÄCKEBY Water Group, Nestlé S.A., SABMiller, Suez 등 6개 기업의 CEO들은 전 세계 기업인들을 향해 세계적 물 위기(global water 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즉각적인 행

등을 개시해 달라고 촉구하였음

- CEO들은 기업의 본사 및 모든 협력업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물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CEO의 물에 대한 의무(CEO Water Mandate)”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이를 정상 회의에서 선보였음
- 본 회의에 소개된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또한 자본 시장에 대한 기업 시민정신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음
- 그 밖에 “책임있는 경영 교육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은 전 세계 경영 학교에서 보편적 가치 및 기업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출되었음

## 5.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대표단은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각료 회의(7. 6)에서 한국의 혁신, 반부패 활동을 소개
- 민간대표단은 총 9개社 14인이 참석하여, 한국 네트워크의 설립을 알리고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한국의 본격적인 참여 의지를 천명
- 아울러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각국 기업 대표단과의 네트워크 활동 및 국제 CSR, 환경, 인권 문제 등의 저명 인사들과 교분을 구축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 「유엔 글로벌 컴팩트(UN 글로벌콤팩트)」

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만들어진 협약으로, 현재 100여 개국 4,000여 개 기업 및 단체들이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부문의 10대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II. 제네바 선언(Geneva Declaration)

### 1. 전 문

- 국제 사회와 전 세계적 기업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음
  - 지속가능한 시장 구축, 부패 척결, 인권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공통 목표는 기업, 시민사회, 노동계, 정부, UN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개방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새로운 협력 정신의 저변에는, 세계화가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될 경우 세상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인류와 지역 사회, 전 세계 시장 모두에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
  - 빈곤, 소득 불균형, 보호주의, 양호한 일자리 기회의 부재 등은 세계 평화 및 시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제는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임
- 세계화의 핵심 주체인 기업에게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
  - 기업들이 기업의 시민정신 및 유엔 글로벌콤팩트 기본 원칙들을 이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전파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세계화는 '최고를 향한 레이스(race to the top)'에서 가치 지향적 경쟁을 유발함과 동시에 보편적 원칙 확산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런 독특한 시대적 상황에 공감하면서, 우리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 참석자 모두는 제네바에 모여 다음과 같은 성명 및 서약에 동의하는 바임

## 2. 기업의 사회적 역할

### 제1항

- 세계화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음
  - 시장, 지역 사회 및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에 없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제2항

- 유엔 글로벌콤팩트 원칙 또는 이와 유사한 여타 기업 책임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의 시민정신 제고 활동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 역시 구현할 있음

### 제3항

-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은 사회·경제적 통합에 기여하며, 이는 유엔의 기본적인 목표인 국제 협력과 평화, 발전, 인권 보호를 앞당기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음

### 제4항

- 유엔 글로벌콤팩트 기본 원칙들을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공개적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들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개선 사항을 평가할 수 있음

### 제5항

-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갈등 상황, 도전 과제, 기회 등이 매우 복잡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으므로 정부, 시민사회, 노동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제6항

-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 결정과 가치 고려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한 원칙(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틀/framework임
  - GRI 가이드라인과 같은 표준화된 방법론 및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비교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제7항

- 투자자들과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지배력이 미약한 정부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서,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투자함으로써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활동은 유엔 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해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다수의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구축해 놓은 다양한 도구 및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경우에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

## 제8항

- 투자자들의 소임은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투명성 제고 노력과 책임있는 기업 활동 수행을 독려하는 것이며, 또한 지배력이 미약한 지역의 정부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고 관련법 및 국제 규범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임

## 제9항

- 금융기관들은 대출된 자금이 반드시 국제 기준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출되도록 해야 함
  -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은 대출에 대해 공동 합의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임
    -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 프로젝트 파이낸싱(사회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 대출 등)에 있어 사회·환경적 위험을 결정,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침으로 2003년 6월 국제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개발하였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14개국 28개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음

## 3. 유엔 글로벌콤팩트 참여 단체의 역할

### 제10항

- 우리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 참석자 모두는 인권, 노동 여건,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엔 글로벌콤팩트 및 10대 원칙을 이행해 나갈 것을 서약함
  - 또한 원칙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기업의 전략, 운영, 문화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

### 제11항

- 기후 변화와 새천년개발목표(MDG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 공통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할 것임

## 제12항

- 기업의 시민정신에 대한 이행의지 및 정책이 본사와 자회사 등 조직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매년 COP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할 것임

## 제13항

- 전 세계 모든 자회사 및 영업점(business units)을 망라하여 유엔 글로벌 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10대 원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임

## 제14항

- 협력업체 파트너 및 여타 조직들이 유엔 글로벌콤팩트 및 10대 원칙의 이행을 위해 힘쓰도록 독려할 것임

## 제15항

- 국내외 기업간 및 여타 업계 간에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제휴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임

## 제16항

- “책임 경영 교육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기업 지도자들에게 기업의 시민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임

## 4. 정부의 역할

### 제17항

- 우리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 참석자 모두는 기업 활동에 보편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탄탄하고 포괄적인 세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은,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정부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투명성 및 기업가 정신 제고에 효과적인 경제 제도와 지원 정책을 갖춘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18항

-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노동 기준 및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관련 협약과 선언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함

### 제19항

-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공개적 지지와 교육적 지원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제20항

- 정부는 개방된 국제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고, 보호주의와 내부 지향성(inward orientation)은 배척해야 함

## 제21항

-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협력관계(governance), 지원 및 재원마련 체계를 갖춘 혁신적 민관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그리고 유엔의 가치를 세계 기업 사회에 앞당겨 전파하고자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구축된 이니셔티브임
  - 모든 유엔 회원국 및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동 이니셔티브를 지지함과 동시에 유엔 내에서 이니셔티브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결론적으로 우리 글로벌콤팩트 정상 회의 참석자 모두는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을 통해서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바임

### III. 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 주요 인사 발표 내용

☞ 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The 2007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본회의 및 분임토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반기문 사무총장(본회의 개막연설)

- 금번 총회에 9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세계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
- 글로벌콤팩트 가입단체가 현재 116개국 4,000여개를 넘는 등 지난 3년간 발전상을 높이 평가(2000년 7월 47개사 참여 대비)
- 글로벌콤팩트의 선·후진국에 공동 확대 환영, 현재 80개국에 네트워크 설치
- 세계화·자본시장의 확대 등 큰 상황 변화로, 상호의존의 시대에 기업의 리더쉽과 책임성이 중요
-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금번에 채택하는 "기후보호선언"이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
- 제네바 선언이 향후 행동의 좋은 틀이 되기를 기대
- 기업, 노조, 시민사회간 건설적 대화 협력을 기대
- 학계의 기업윤리 등 교육 확산을 기대
-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
- 유엔의 전폭적 지지를 다짐

#### □ E. Neville Isdell 회장(코카콜라)

- 기업이 지속가능 경제의 장애물이 될지, 촉진제가 될 것인지 문제 제기
- 기업은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기업의 이익도 있음

- Speak Up(PR), Step Up, Scale Up 해야 함
- 국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코카콜라社도 2006년 글로벌콤팩트에 참여, 자회사 및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권장 중
- 세계 물 문제의 중요성이 심각한 바, 물 부문에서 기금 공여, 앞으로 1억 달러를 공여 약속
- 세계적 사회 변화는 혼자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코카콜라 전 세계 사원의 글로벌콤팩트 참여 의지 강조

#### □ Irene Khan 회장(국제사면협회)

-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도 할 일이 더 많음을 강조
- 회원 확대의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되며, 무임승차자(free riders)가 있어서는 안됨
- 회원의 자격정지(delisting)제도가 필요함
- 자발적 참여이나 실질적인 이행(compliance)이 중요함
- 세계적 기준에 대한 지지가 따라야 하며, 인권부문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함

#### □ Guy Ryder 사무총장(국제노동조합연맹)

- 자발성 원칙을 강조하다가 자기모순(temptational confusion)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적
- 현재도 세계 기업 중 일부가 노조 조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

#### □ Dr. Bernard Kouchner 프랑스 외무장관 ('국경없는 의사회' 창시자)

- 글로벌콤팩트 가치 이행에 기업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며 G-8 정상 회의도 이를 지지
- 글로벌콤팩트의 장점은 자발적 참여이며 강제성이 아니라는 것

- 선·후진국에 같은 기준의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됨
- 글로벌콤팩트 홍보확산을 통해 시민적 지지의 확산을 기대

#### □ George Kell 국장(유엔 글로벌콤팩트 사무국)

- 동 연례보고서는 처음으로 글로벌콤팩트 이행 조사 결과를 심층적, 계량적으로 분석함
- 유엔 글로벌콤팩트 이행이 이해관계자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업 고위층의 인식과 확신을 입증
-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에 있어서 정책 개선을 입증,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Anthony Ling 수석 투자기획관(골드만삭스 보고서)

- 사회적 책임기업 펀드 추세 및 ESG\* 아젠다에 대한 인정 증대
  - ※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 ESG 점수가 높은 회사들이 투자 유치에서 유리
- 자사는 아직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를 존중
- G-6 시장 이외 신흥 BRICs 시장의 중요성
- 사회적 투자에 더 기여할수록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
- GRI 보고서 채택 회사의 수 증대
- 윤리적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음(윤리적인 기업 가운데 25%가 MSCI 세계지수의 상승률을 웃돌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72%에 달함)
  - ※ MSCI 지수 :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로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약자
-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광산·철강 분야에서 우리나라 POSCO를 “지속 가능 우수 기업(GS Sustain)”의 하나로 선정

## □ Jeremy Oppenheim 국장(메킨지 보고서)

- '경쟁의 새 규칙 형성' 관련 보고서
- 글로벌 사회적 계약, ESG 아젠다의 중요성, 글로벌콤팩트 이행의 큰 도전 과제 언급
- 환경, 사회 책임, 거버넌스 증대로 성장 및 이윤창출이 가능하다는 신념 공유 확대
- 기후변화의 영향 등 도전 과제들이 있으나 기업들이 'Scale Up'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
- SRI 기준 등 적용, 신흥력 모델을 창출할 필요성(Rainforest Alliance, The Global Fund 등 사례)
- 추출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 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s)등 소개
-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신소비층, 신브랜드, 신메트릭스 활성화
- 신 ESG 아젠다를 주류화하고 새로운 핵심 비즈니스를 추구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함
- 글로벌콤팩트의 진정한 세계적 차원의 역할 필요

## □ Jeremy Hobbs 회장(Oxfam International)

- ESG 도입이 적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비판, 업계의 관심 부족을 지적
- 아프리카 빈곤의 상존에 대한 지적, 기후변화와 빈곤과의 상관관계 주목 필요
- 옥스팜은 식량문제와 빈곤문제만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이제는 기후 변화문제에 대해 다루기 시작

□ Anne Lauvergeon 이사장 (Areva)

- 모두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공동 행동의 틀이 필요
- Areva사는 100억불의 판매고를 올리며 CO2 배출없는 생산을 목표로 함
-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그룹 전체 차원의 발전 혁신 가치이며, 2004년의 100억불에서 2007년의 250억불 매출신장은 우리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B. Muthuraman 사장(Tata Steel)

- Tata Steel은 이미 1920년대 인도에서 노조를 첫 번째로 창설하였음
- 강하고 책임있는 노조는 중요함
- 45개국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도 건전한 노조가 필요함

□ Ntombifuthi Mtoba 이사장 (Deloitte South Africa)

- 93개국이 유엔반부패협약에 서명한 바,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특별한 반부패 틀(Framework)이 필요
- 실질적으로 강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공부문 개혁에서 공급 측면의 부패구조를 끊어야 함

□ Colin Melvin 사장 (Hermes Equity Services)

- ESG는 영국의 연금기금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음
- 1년 전 출범한 'Responsible Investment'에는 이미 200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음

## □ Raymundo Magliano Filho 이사장(Brazilian Stock Exchange)

- 브라질 증시의 40개社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참여
- 환경펀드 설치 등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치 확산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Michele Bellon 부사장(Veolia-Dalkia)

- 기후변화를 적극적인 새 사업의 창출 기회로 보고 있음
- 물, 에너지 등 환경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
- 기술개발에 힘쓰고 67개국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장 혁신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

## □ 기후변화 관련 분임토의 결과

### — 각 그룹 보고

- 기후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틀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성
- 환경회복 프로젝트가 필요
-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 리더십 행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탄소 마크(Carbon Mark)의 도입 주장, 2012년 후 기후변화협약의 강화 여부에 대한 참여자의 선호도를 즉석에서 문의 조사

## □ 폐회식

### — 싱가포르 Lim Boon Heng 장관

- 각료회의에서 정리된 “의장 요약문(Chairperson’s Summary)”을 발표

-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호의적 환경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등 유엔 글로벌컴팩트 활동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선언

— Sir Mark Moody-Stuart 회장(Anglo Amer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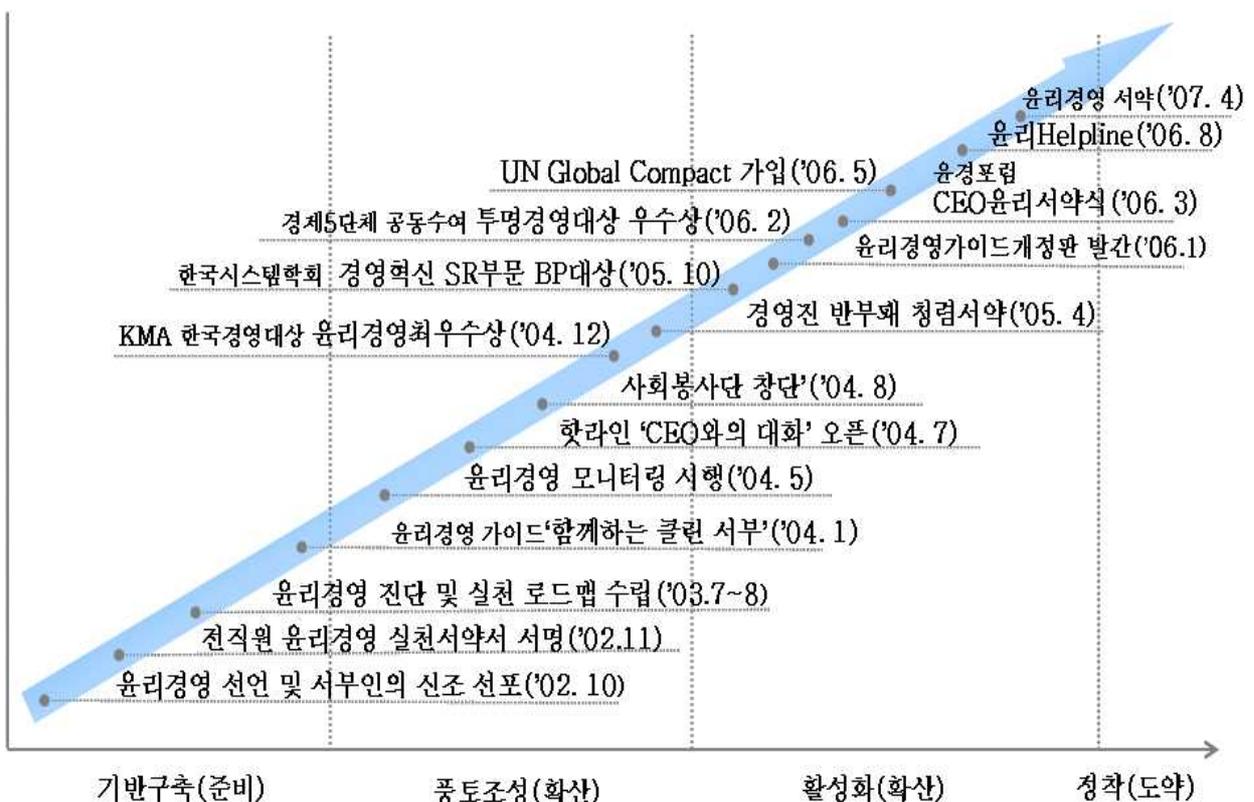
-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니셔티브에 200개 기업 참여, 8조 달러 동원을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 금번 총회 결과 COP 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미 500여 개 회사가 자격정지(delisting) 되었음에 주목해야 함
-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고서는 제출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정직한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기업들은 관련 자회사들의 유엔 글로벌컴팩트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노동계, 국가 차원, 지역 차원의 참여 촉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봄
- 유엔 글로벌컴팩트 이행에 몇 가지 틀이 제시되었음
-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양식으로, 각국의 법적 요건에 맞는 COP가 작성되기를 권고함
- 오는 10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리는 유엔 글로벌컴팩트 네트워크 대회('07.1017~19)에서 생산적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각국 협회는 중소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지원해야 함
- 또한 “제네바 선언”을 선양해 주기 바람

## IV.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 □ 한국서부발전의 윤리경영 사례\*

\* 2007. 7. 20일 한국서부발전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윤리경영 추진 여정》



### 《윤리경영 Keyword》

— 윤리강령(서부인의 신조) 중심내용

- 고객 : 고객관점의 행동, 정직과 투명성, 값싸고 질 좋은 전기공급
- 지역사회 : 윤리적인 사업 활동과 환경보전, 공동번영 추구
- 직원 : 「삶의 질」 향상과 만족, 능력과 기회균등, 성실한 책무
- 주주 : 성실한 투자이익 도모, 투명한 회계

## 《윤리헌장 체계》

기업윤리헌장	서부인의 신조	서부인의 기업윤리 이념 및 가치관 제시
기업윤리 실천방침	윤리경영 실천방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실행체계 및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 명시
기업윤리 행동규범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기준 제시 -국민과 고객, 지역사회, 환경보전, 안전사고 예방, 협력업체, 임직원, 주주 등에 대한 윤리

## 《추진목표 및 전략》

### □ 추진 목표

장 기	'윤리경영 Leading Company' 구현
단 기	청렴도평가 1위 달성

### □ SWOT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 회(O)	위 험(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도 조사결과의 지속 향상으로 기업이미지 상승</li> <li>○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노력 우호적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 및 민간기업 이상의 실천 요구</li> <li>○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감시 강화</li> </ul>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O 및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구성원의 잠재력</li> <li>○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추진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평가지표 개발</li> <li>○ 자발적 윤리 실천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 대내외 홍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경영 지원활동 강화</li> <li>○ 윤리경영실천 우수사례 학습 및 벤치마킹 강화</li> </ul>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인 의식변화 및 부정적 시각 잔존</li> <li>○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성 및 변화관리 역량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윤리실천 체질화</li> <li>○ 윤리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활동 지원</li> </ul>

□ 추진현황 및 자체평가

- '02년부터 윤리경영체계 구축과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실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04년부터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주기적인 점검으로 윤리 취약분야 및 고객 불만족사항을 상시 피드백하고 개선하는 등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그간의 노력으로 대외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가결과가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잠재 청렴도 부분은 아직 우수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 한전주관 청렴도평가 : ('04) 80.3점 → ('05) 87.3점 → ('06) 95.5점
  - 잠재청렴도 : ('04) 86.7점 → ('05) 89.5점 → ('06) 92.8점

□ 추진 전략

목표	윤리경영 Leading Company 구현
----	-------------------------

단 계 별 전 략	전력그룹 윤리경영 Leading Company ~ 2006년	전력그룹 윤리경영 Leading Company 2007년	국내기업 윤리경영 Leading Company 2008년 ~
	윤리적 기업문화 확산	윤리기업 이미지 정착	윤리 선진기업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li> <li>▪ 윤리실천 제도개선</li> <li>▪ 윤리평가시스템 정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경영지표 개발</li> <li>▪ 윤리기업 이미지 홍보</li> <li>▪ 개인, 부서평가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형 윤리경영시스템 정착</li> <li>▪ 자율실천 프로세스 확립</li> <li>▪ 추진조직 역량 강화</li> </ul>

'07년 중점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 취약분야 개선으로 잠재청렴도 수준 제고</li> <li>▪ 자체 윤리경영진단 지표 개발</li> <li>▪ 윤리 실천력 제고 위한 모티브 강화</li> <li>▪ 윤리경영 리더십 확산 및 전략홍보 지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도지수 상위 달성</li> <li>▪ 윤리경영지표 개발, 적용</li> <li>▪ 윤리경영 만족도 향상</li> </ul>
------------------------	---	---	---

□ 향후 중점추진 방향

- 추진역량 강화 : 장기적 관점으로 ISO26000, UN 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경영체계에 적합한 조직, 인력양성 등 추진역량 강화
-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의식제고 실천프로그램 강화

## 《윤리경영 추진 주요 실적》

구 분	추진 실적																		
1.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례시행('05. 3, '06. 2, '07. 4)</li> <li>○ 직급별 대표 등 그룹별 직원 간담회 실시(수시)</li> <li>○ 윤경포럼 CEO윤리서약('06.3) 및 전력산업 투명사회협약('05.10) 참가</li> <li>○ 전경련, 윤경포럼 세미나 등 대외 윤리경영교육 참석 및 사례발표</li> <li>○ UN 글로벌컴팩트 가입('06.5)으로 반부패, 지속가능기업여건 조성</li> <li>○ 해비타트 집짓기 운동 등 CEO 봉사활동 적극 참여 등</li> </ul>																		
2.시스템 및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경영 전략, 실행, 피드백을 시스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C 전사KPI(26개) 중 2개(청렴도지수, 윤리경영만족도) 운영</li> </ul> </li> <li>○ 분야별 추진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 야</th> <th style="width: 8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고 객</td> <td>P-CRM, 기업구매전용카드제, 선금지급지침 제정</td> </tr> <tr> <td>구성원</td> <td>전략적 퇴직직원관리제도, Well-being형 선택적복지제도</td> </tr> <tr> <td>인 사</td> <td>다면평가제, 신입사원채용제도 개선(학력,연령제한 폐지)</td> </tr> <tr> <td>계 약</td> <td>청렴계약제, 전자입찰 확대, 입찰참가신청 규정개선</td> </tr> <tr> <td>중소기업</td> <td>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컨설팅 지원</td> </tr> <tr> <td>환 경</td> <td>환경표준시스템 도입, 환경친화설비(탈질,탈황) 건설</td> </tr> <tr> <td>사회공헌</td> <td>봉사마일리지 제도, 봉사활동 유급휴가제 도입</td> </tr> <tr> <td>기업문화</td> <td>클린카드제, 집중근무제, 스마일 프로듀서 양성</td> </tr> </tbody> </table>	분 야	주요 내용	고 객	P-CRM, 기업구매전용카드제, 선금지급지침 제정	구성원	전략적 퇴직직원관리제도, Well-being형 선택적복지제도	인 사	다면평가제, 신입사원채용제도 개선(학력,연령제한 폐지)	계 약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확대, 입찰참가신청 규정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컨설팅 지원	환 경	환경표준시스템 도입, 환경친화설비(탈질,탈황) 건설	사회공헌	봉사마일리지 제도, 봉사활동 유급휴가제 도입	기업문화	클린카드제, 집중근무제, 스마일 프로듀서 양성
	분 야	주요 내용																	
	고 객	P-CRM, 기업구매전용카드제, 선금지급지침 제정																	
	구성원	전략적 퇴직직원관리제도, Well-being형 선택적복지제도																	
	인 사	다면평가제, 신입사원채용제도 개선(학력,연령제한 폐지)																	
	계 약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확대, 입찰참가신청 규정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컨설팅 지원																	
	환 경	환경표준시스템 도입, 환경친화설비(탈질,탈황) 건설																	
사회공헌	봉사마일리지 제도, 봉사활동 유급휴가제 도입																		
기업문화	클린카드제, 집중근무제, 스마일 프로듀서 양성																		
고 객	P-CRM, 기업구매전용카드제, 선금지급지침 제정																		
구성원	전략적 퇴직직원관리제도, Well-being형 선택적복지제도																		
인 사	다면평가제, 신입사원채용제도 개선(학력,연령제한 폐지)																		
계 약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확대, 입찰참가신청 규정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컨설팅 지원																		
환 경	환경표준시스템 도입, 환경친화설비(탈질,탈황) 건설																		
사회공헌	봉사마일리지 제도, 봉사활동 유급휴가제 도입																		
기업문화	클린카드제, 집중근무제, 스마일 프로듀서 양성																		

| 3.윤리이식 제고 및 실천 | -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전직원 서명('02.11) 및 실천다짐대회('03.4) - 윤리경영 실천카드('05.5) 및 가이드북 제작('06.1)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직원 : 기본소양교육, 신입사원교육, 사이버교육(1,200명) 등   - 실무자 : 윤리담당자 교육, 고객만족 교육, 윤리전문가 교육 등 - 윤리경영 정착 실무자 워크숍 정례 개최(반기)   -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변화관리자 양성 및 윤리경영실천 확산 - 윤리경영 실천캠페인 지속 추진   - 인트라넷 팝업창, 포스터·배너, 사보 칼럼 활용 - 제도적 지원을 통한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확산   - 자발적 모금프로그램(급여우수리, 나눔이계좌), 매칭그랜트   - 봉사마일리지제, 봉사활동 유급휴가제 |

구 분	추진실적				
4. 피드백	○ 외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종 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 고
	C C M*	협력업체, 내방고객	전화면접조사	반기별	목표설정 운영, 주기 피드백
	C E M**	내부직원	우편설문조사	반기별	
	전화 친절도	내부직원	전화 모니터링	반기별	
* CCM : Category Consumer Management ** CEM : Category Employee Management					

### 《윤리경영 추진 주요 성과》

#### 윤리·투명경영 분야

-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04.12)
- 경제5단체 공동수여 2006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수상('06.12)

#### 경영혁신 분야

- 기획예산처 주관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 3년 연속 5단계 달성
- 산업자원부, 표준협회 주관 한국품질대상('05.12) 수상

#### 직원만족 분야

- 엘테크신뢰경영연구소 주관 훌륭한 일터상(GWP) 3년 연속 수상('03~'05년)

#### 사회공헌 분야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주관 경영혁신베스트프랙티스(SR부문) 대상 수상('05.10)

#### 중소기업지원 분야

- 중소기업청 주관 제1회 아름다운 동행상 국무총리상 수상('06.6)
- 전경련 주관 대중소기업협력대상 국무총리상 수상('06.12)

#### 환경 분야

- 한국일보 주관 대한민국 ESH 가치경영대상 수상('05.12)
- 조선일보 주관 환경대상(푸른하늘 부문) 수상('06.6)

## V. 국내 윤리경영 동향

### 【 기업 관련 】

#### ◎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창립 발기인대회 개최(7.2)

—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창립 발기인대회가 주요 공기업, 민간기업, 정부기관 대표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99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제창한 뒤 2000년 7월 뉴욕유엔본부에서 창립되었으며, 현재 MS, 코카콜라, 휴렛 팩커드 등 다국적 기업 3천여 개사가 가입하였고,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유한킴벌리, 철도공사 등 63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07.7.23현재)

— 한국협회는 오는 9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SR(Social Responsibility) 파트너십 구축, 이행성과 보고서 작성 지원, 핵심 사안에 대한 회의·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국(전화 : 02-749-2149/50)

#### ◎ 경기지방공사, 투명사회 협약 체결(7.5)

— 경기지방공사는 공사 임직원, 삼성·현대·GS건설, 설계용역사 등 14개 건설 관련 협력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하였음

○ 참석자들은 윤리경영 강화, 사회공헌 확대,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부패방지제도 실천 약속 및 실천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공사 전직원이 ‘클린핸드(CLEAN HAND) 10’\* 캠페인을 벌이기로 함

- \*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 처리, 직무 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사익 추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

### ◎ KT,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 개정(7.6)

- KT는 최근 '고객가치혁신위원회'를 열어 임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바꾸고 8월부터 시행토록 함
  - 거래 회사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골프 예약을 청탁하는 행위, 거래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품, 향응 수수로 간주해 엄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개정 지침에 추가하는 등 실제 임직원들이 근무 중 여러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

### ◎ LG전자, '클린 글로벌 LG 프로젝트' 추진(7.8)

- LG전자는 'LG식 윤리경영'을 전 세계 70여 개 현지 법인에 토착화시키는 '클린 글로벌 LG 프로젝트'를 진행
  - LG전자의 해외 사업장 직원도 한국 본사 직원과 동일한 '윤리의식'을 공유해 '깨끗한 LG맨'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
  - 윤리경영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lge.co.kr/ethical\\_main.jsp](http://www.lge.co.kr/ethical_main.jsp)) 개편 작업을 통해 10월부터 한국어와 영어에 이어 중국어와 스페인어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윤리규범 등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보강·게재
  - 또한 해외 사업장의 윤리경영을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담당토록 하던 관례를 깨고 현지 외국인이 사업장 내 감시활동을 직접 관리·전파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해외 현지인의 자체 윤리경영 활동 강화 추진

◎ 대전상공회의소, 윤리경영 세미나 개최(7.10)

- 대전상공회의소는 '윤리경영시대, 기업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전·충남지역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
  -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한 강연 및 POSCO의 윤리경영 모범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됨

◎ 웅진그룹, 「2006 사회환경보고서」 발간(7.11)

- 웅진그룹은 지난 1년 동안 그룹 계열사가 펼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을 정리하여 「2006 사회환경보고서」를 발간
  - 보고서에는 웅진그룹 계열사별로 환경 보전, 교육·장학,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주요 사회공헌 활동 내용과 집행 금액 등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는 2년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기부문화와 활성화 과제」 보고서 발표(7.11)

- 전경련은 「기업 기부문화와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의 기부,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
  - 대기업 154개社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3.8%가 기부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 등 기업 내부의 자원 부족'(22.8%), '비영리단체의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부족'(22.2%), '기부처 선정의 어려움'(18%) 등을 들었음
  - 기부처를 선정할 때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응답은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관성'(39.6%), '기부처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27.3%), '기부처의 사업 수행능력과 효과성'(16.2%) 순으로 나타나 기업의 기부 활동도 종전의 단순 기부방식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

- 전경련은 비영리단체들이 사업 추진경과, 결과 보고 등에 투명성을 좀 더 높여 주면 기업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부 사업의 사후 회계감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체제의 필요성을 강조

### ◎ 현대오일뱅크, 지속가능보고서 발간(7.12)

- 현대오일뱅크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창조경영 등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
  - 이번 보고서는 국제적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2월부터 사내 윤리위원회와 환경협의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격상시켜 운영중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과 함께 임직원 봉사단 활성화 등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 한전원자력연료, '윤리·경영혁신 실천 결의 대회' 개최(7.23)

- 한전원자력연료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혁신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
  - 이 날 대회에서 전 직원은 청렴하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비전 2020 미래상'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며 반부패 청렴물결운동인 클린웨이브 운동 실천을 다짐
  - 또한 업무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체계 확립, 반부패 청렴 감찰활동 강화,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등 투명경영 기업을 위한 4대 전략, 23개 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신청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 등, '2007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대상' 시상(7.25)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 한국 소비자경제혁신원이 주관하는 '2007 대한민국 신뢰 받는 CEO 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음
- 올해는 공공행정, 금융, 서비스, 건설, 제조, 유통 등 분야에서 한국조폐공사 이해성 사장 등 모두 16명의 CEO가 수상하였는데, 당장의 경영실적보다는 향후 발전 가능한 CEO로서의 리더십, 윤리경영, 기업 비전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등의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음

◎ 스포츠토토, 윤리강령 제정 및 시행(7.26)

- 스포츠토토는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이번 윤리강령 제정에 따라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이 주어지고,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

【 정부 관련 】

◎ 환경부,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도입(7.3)

-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용기·포장 표시규격에 국제기준인 GHS를 도입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분류 중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건강·환경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제품정보,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할 계획
- 동 시행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향후 3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마련 중으로, 2008년 상반기에 1,500여 종 유독물 각각에 대한 세부 분류 및 표시사항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유독물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

◎ 기획예산처, '2007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개최(7.9)

-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차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향후 혁신방향을 논의
- 그동안의 혁신 노력으로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중심·고객지향 경영문화가 확산되었으며, 경영정보 공시, 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 경영평가 대상('03, 60여개→'04부터, 160여개), 고객만족도('02, 72.3점→'06, 83.6점)

\*\*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운영('05부터), 청렴도('03, 7.44→'06, 8.95)

- 향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을 다짐

-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기관이 소개됨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200개 돌파(7.11)

- 환경부는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저감 활동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자는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을 현대오일뱅크(충남 서산), 삼남석유화학(전남 여수) 등 39개 사업장과 추가로 체결

- 2004년 12월 GS칼텍스,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17개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작년까지 167개 사업장으로 협약을 확대하였으며, 이번 체결로 총 206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

- 금년도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02년의 배출량을 100으로 보아 2009년까지 30%, 2011년까지 50%를 줄이자는 것으로 참여기업이 절감대상 물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시 가점, 저감 우수업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환경부는 30/50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존 1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동 협약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추가 체결로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향후 환경부는 배출저감기술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그 결과를 협약사업장 외 배출량조사 사업장 및 중·소 협력업체 등으로 전파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 추진실적평가단을 구성하여 협약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

◎ 산업자원부, 부산·인천·대구 등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에코 혁신 사업' 킷오프 행사 개최(7.12)

— 산업자원부는 지역 중소기업 60개社 CEO 및 산업환경 담당자를 비롯, 지자체, 국내외 컨설팅 기관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및 능력 배양을 위해 부산, 인천, 대구 등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에코혁신사업'의 킷오프 행사를 개최

※ 지역에코혁신사업 : 'ECOPROFIT'\* 방법론을 토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 역량 배양 및 지역기반 컨설턴트 육성을 동시 추진하여 지역단위의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 ECOPROFIT 프로그램

- 1991년 오스트리아 Graz市와 오스트리아 청정생산센터(CPC Austria)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 전문 컨설턴트 및 기업이 공동협력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 국내에서는 '05-'06년간 시범추진하여, 14명의 ECOPROFIT 인증 컨설턴트 양성 및 3개 지역(부산, 인천, 대구) 총 15개 참여 기업의 환경적/경제적 성과가 확인됨(직접 투자비 4.4억원 대비 연간 3억원 효과)

— '지역에코혁신사업'은 지역별로 5년간 추진되며, 올해 부산, 인천, 대구 광역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지자체 및 기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 '오프니(OPNI)' 개통(7.16)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 '오프니(OPNI : Online Provision of ENterprises Information, <http://groupopni.ftc.go.kr>)'를 개통

-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 및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06.11.15)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 분산되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동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갖춘 기업집단이 가치를 인정받는 메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이 선진화되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CCMS 인증 9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7.16)**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인증 신청 기업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평가('07. 2/4분기)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에 대하여 '07.7.1~'09.6.30(2년)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

※ **CCMS** : 기업이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 우수기업(9개)

- 교보생명보험(주), 남양유업(주), 대한생명보험(주), 삼성카드(주), 삼성생명보험(주), 엘지전자(주), 웅진코웨이(주), (주)풀무원, 해태음료(주)

※ 인센티브 내용

- ① 신고사건 자율처리 :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토록 통보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별도 조사 및 심사 면제
- ② 시정조치수준 경감 :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
  - 1단계(인증기업) :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하향조정
  - 2단계(인증기업이 위반행위 자진시정) : 공표명령 면제
- ③ 우수기업 등 포상 : 우수 모범기업에 대하여 포상(공정거래의 날)
- ④ 인증마크사용 : CCMS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 CCMS 인센티브는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 인증기업에 한하여 제공

— 향후 공정위는 CCMS를 많은 기업이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

◎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한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7.20)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07.7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출총량관제·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
  - 총량관제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한 웹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각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변동이력을 기록하고 조회·관리 가능
    - 사업장 자동측정기기로부터 대기오염물질 기초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비정상 자료의 검증 등을 통해 최종 배출량을 확정하게 되며, 웹화면상에서 사업장 측정시설에 대한 원격제어
    - 사업장에서 기준치 초과, 데이터 미수신 등 이상자료 수신시 사업장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동 예·경보 시스템이 운영되며, 배출량 산정 및 분석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사업장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 제고
  - 또한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거래, 이월, 감량, 초과부과금 산정 등 행정사항을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사업장 및 관련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도모

◎ 정보통신부,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북 발간' 발간·배포(7.24)

- 정보통신부는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와 공동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북'을 발간·배포
  - 본 가이드북은 표준매뉴얼과 협력 우수사례 소개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부 표준매뉴얼에서는 상생경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프로세스별로 제시하였으며, 제2부 우수사례집에서는 국내 통신 및 IT서비스 대기업과 IT중소기업간 협력 우수사례를 담고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발표(7.24)

-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행정처리 기준·절차 및 이의제기 시스템 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 올해는 33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약 9만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138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 약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인사·예산집행 관련 청렴도를 함께 측정할 계획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의 경우 측정 대상 기관은 전체 333개로, 중앙부처 32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97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72개임
  -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투명·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측정 대상 기관을 지난해 40개에서 올해는 72개로 대폭 확대하였음
  - 측정 업무는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 소지가 높은 업무가 대상이며 조사 방식은 민간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로 실시함
  - 반면 내부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전체 138개로, 중앙부처 47개, 광역자치단체 16개, 시 75개이며 측정모형은 지난해 시험 측정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였음
- 한편 청렴위는 9만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를 측정할 민간조사 전문 업체를 오는 8월 선정, 9월부터 12월까지 청렴도를 측정할 뒤 그 결과를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